

한육우 및 돼지 부문 수급 동향과 전망

지인배* · 이형우** · 한봉희*** · 김원태****

1. 한육우

- 1.1.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동향
- 1.2. 쇠고기 교역여건 전망
- 1.3.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2. 돼 지

- 2.1.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동향
- 2.2. 돼지고기 교역여건 전망
- 2.3.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iinba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hanb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tkim@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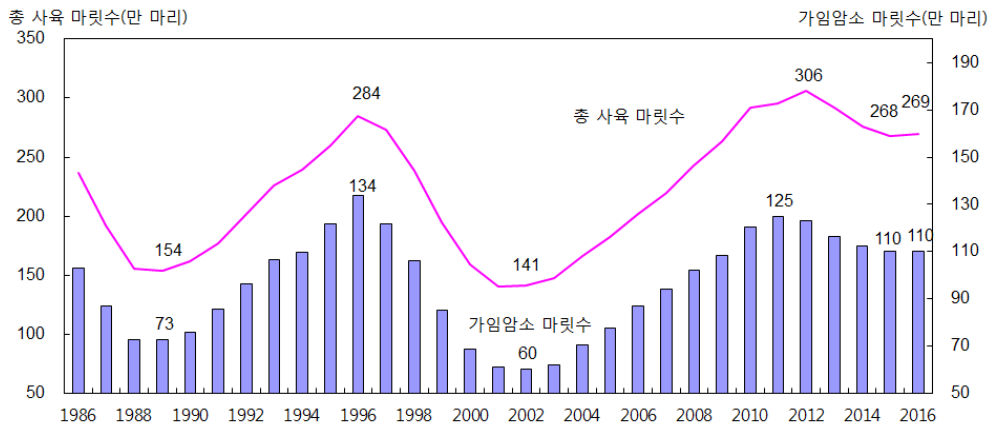
01 한육우

1.1.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동향

1.1.1. 사육 동향

-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일정한 주기로 증감을 반복한다. 199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84만 마리(가임암소 134만 마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1년에는 141만 마리(가임암소 60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2003년 미국 BSE 발생 이후 국산 쇠고기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한육우 사육 마릿수 또한 연평균 8.0%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6만 마리에 이르렀다.
- 송아지 가격 약세로 번식의향이 위축되어 2011~13년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여 2013년 이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15년 사육 마릿수는 2014년(276만 마리)보다 3.0% 감소한 268만 마리였다. 그러나 201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육우 사육 증가로 2015년보다 0.7% 증가한 269만 마리였다.

그림 23-1. 한육우 사육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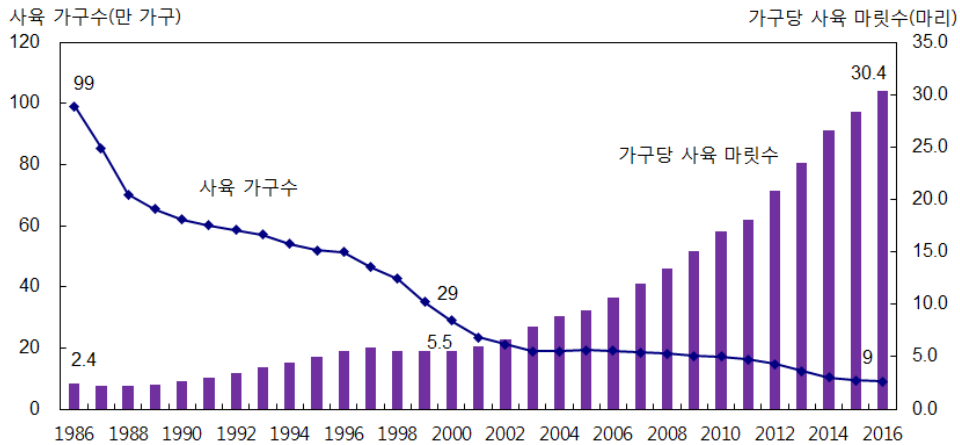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임(2016년은 추정치).

자료: 통계청

- 한육우 사육 가구수는 암소감축사업과 FTA 폐업지원 등의 영향으로 소규모 농가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00년 29만 가구에서 2016년 9만 1천 가구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규모화의 진전으로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2000년 5.5마리에서 2016년에는 30.4마리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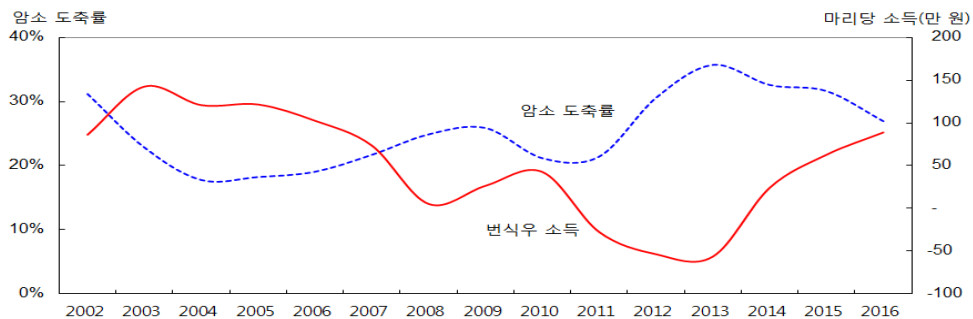
그림 23-2. 한육우 사육 가구수와 가구당 사육 마릿수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 일반적으로 암소 도축률은 번식우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2011~13년 기간에는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번식우 수익성 악화로 암소 도축률이 높았다. 2014년 이후에는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번식우 소득이 높아지면서 암소 도축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3. 암소 도축률과 번식우 소득



1) 암소 도축률 = 전년도 1세 이상 암소 중 올해 도축된 마릿수 / 전년도 1세 이상 암소 마릿수임.
2) 2016년 번식우 마리당 소득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비육우 등급별 소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6년 한우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3등급을 제외한 전(全) 등급에서 정(正)의 소득으로 추정되었다. 등급별 소득 격차를 살펴보면, 1+등급과 1++등급 간 소득격차는 77만 원, 3등급(최하)과 1++등급(최고) 간에는 297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2016년 한우 도매가격 및 비육우 소득 추정

단위: 천 원/600kg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600kg 환산 기준)	경영비(B)	소득 (A-B)
1++	21,737	7,786	5,527	2,260
1+	19,585	7,015		1,489
1	18,325	6,564		1,037
2	15,835	5,672		145
3	13,446	4,816		-711

☞ 1) 등급별 경락가격을 한우 지육률(59.7%)을 이용해 600kg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 2016년 경영비는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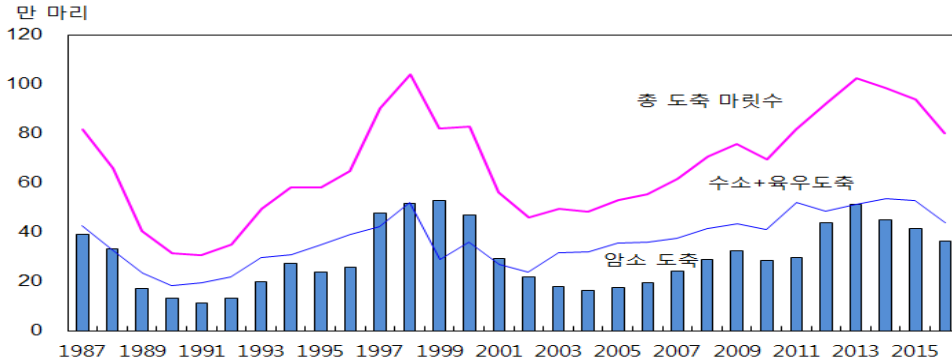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1.2. 수급 동향

가. 공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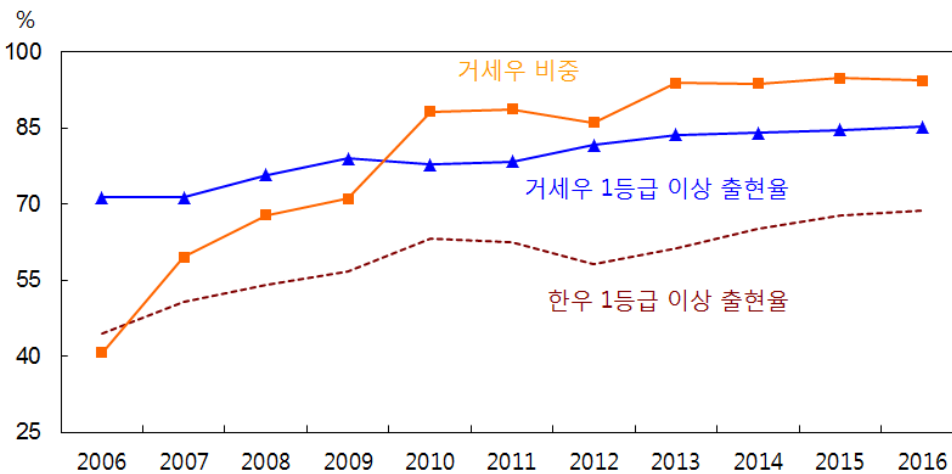
- 육우 도축이 늘어난 반면 암소와 거세우 도축이 크게 감소하여 2016년 한육우 도축 마릿수는 2015년보다 14.3% 감소한 80만 4천 마리(한우 73만 8천 마리)였다. 이 중 암소 도축은 35만 5천 마리(2015년 대비 14.0% 감소), 수소는 38만 5천 마리(18.0% 감소), 육우는 6만 5천 마리(13.7% 증가)였다. 총 도축 마릿수에서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4.1%(2015년 44.8%)를 기록하였다.
- 2016년 수소 도축 중 거세우 비중은 94.7%(2015년 94.8%, 2003년 27.9%)를 기록하였다. 출하월령이 길어지면서 전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률은 2015년 67.9%에서 2016년 69.3%로 1.4%p 상승하였다.

그림 23-4. 한육우 도축 마릿수



자료: 통계청

그림 23-5.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과 거세우 비중



거세우 비중 = $\frac{\text{거세우}}{(\text{비거세우} + \text{거세우})} \times 100$

자료: 통계청

- 2016년 쇠고기 수입량은 36만 1천 톤으로 2015년 동기기간보다 21.6%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호주산이 17만 8천 톤으로 수입 쇠고기 시장의 49%를 점유하였다. 미국산은 15만 3천 톤(42%), 뉴질랜드산은 2만 톤(6%), 기타 국가산은 1만 톤(1%)이 수입되었다.
- 2016년 쇠고기 수입 시장 특징은 미국산 쇠고기의 약진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가장 많았던 2003년(22만 톤)과 비교하면 아직은 적은 수준이지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표 23-2.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단위: 천 톤(비율)

구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기타	합계
2011년	107 (37)	145 (50)	0 (0)	33 (12)	4 (1)	289 (100)
2012년	100 (40)	124 (49)	2 (1)	26 (10)	1 (1)	254 (100)
2013년	89 (35)	143 (56)	1 (1)	22 (9)	1 (1)	257 (100)
2014년	105 (37)	150 (53)	3 (1)	21 (8)	1 (1)	280 (100)
2015년	113 (38)	164 (55)	1 (1)	18 (6)	2 (1)	298 (100)
2016년	153 (42)	178 (49)	5 (1)	20 (6)	5 (1)	362 (100)

☞ 괄호 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6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14.0% 감소한 21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쇠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21.6% 증가한 36만 2천 톤이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총 공급량은 2015년보다 5.1% 증가한 58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 수입량 증가에 따른 쇠고기 총 공급량 증가로 2016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5년보다 4.6% 증가한 11.5kg으로 추정된다.
- 쇠고기 자급률을 살펴보면, 2013년 50.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37.7%까지 하락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급률 하락은 국내 가격 상승으로 국산 쇠고기 소비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고기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표 23-3. 쇠고기 수급

단위: 천 톤(정육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p)
공급	전년 이월	-	-	2	-	-	-
	생산	216	234	260	261	255	219
	수입	289	254	257	280	298	362
	계	505	488	519	541	553	581
수요	국산소비량	216	234	260	261	255	219
	수입소비량	289	252	259	280	298	362
	차년 이월	-	2	-	-	-	-
	계	505	488	519	541	553	581
총 소비량		505	486	519	541	553	581
자급률(%) ¹⁾		42.8	48.2	50.1	48.1	46.0	37.7
1인당 소비량(kg)		10.2	9.7	10.3	10.8	10.9	11.5

주 1) 자급률 = $\frac{\text{국산 쇠고기 소비량}}{\text{쇠고기 총 소비량}}$

2) 2016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수요 동향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713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2~4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 조사 결과, 2016년 국산 쇠고기 소비량을 늘렸다고 응답한 빈도가 111명(15.9%)으로 2015년(26.5%)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국산 쇠고기 가격 강세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23-4. 2016년 국산과 수입 쇠고기 소비량 변화

단위: 명(%)

구분	국산	수입
늘렸다	111(15.9)	151(21.8)
변동 없음	414(59.5)	365(52.7)
줄였다	171(16.0)	176(25.5)
합계	696(100.0)	692(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정육점형 식당(정육점과 상차림 비용을 받는 식당의 결합 형태)을 경험한 빈도가 응답자의 75.3%(527명)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방문횟수는 3.78회(2015년 3.85회)였으며, 평균 1인당 식사비용은 3만 2,733원(2015년 2만 5,921원)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에는 정육점형 식당 방문횟수가 줄어든 대신 1인당 식사비용은 2015년보다 26.3% 상승하였다.

- 2017년 국산과 수입 쇠고기 소비자 구매의향을 살펴보면, 국산의 경우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22%)이 2016년(21%)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수입 쇠고기에 대해 구매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27%)은 2016년(41%)보다 낮아졌다.

표 23-5. 2017년 국산과 수입 쇠고기 소비자 구매의향 빈도

단위: 명(%)

구분	국산		수입 쇠고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늘리겠다	85(12.1)	92(13.1)	88(12.6)	87(12.5)
변동 없음	469(66.5)	455(64.7)	420(60.3)	412(59.3)
줄이겠다	151(21.4)	156(22.2)	188(27.0)	196(28.2)
합계	705(100.0)	703(100.0)	696(100.0)	695(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쇠고기 구매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격이 높아서(53.8%),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16.2%)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0%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상의 이유(14.2%)라고 답하였으며, 가축질병에 따른 안전성 의심(9.1%)과 둔갑판매에 대한 의심(3.5%)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이 적었다.

표 23-6. 쇠고기 소비량 감소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
가축질병으로 안전성 의심	23(9.1)
건강을 위한 육류 섭취량 감소	36(14.2)
유통과정상의 둔갑판매에 대한 의심	9(3.5)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	41(16.2)
쇠고기 가격이 높아서	136(53.8)
기타	8(3.2)
합계	253(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15년 50.1%에서 2016년에는 64.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 확대(2015년 37.9% → 2016년 42.3%)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표 23-7. 미국산 쇠고기 구매경험 조사

단위: 명(%)

연도	있음	없음	총계
2012년	336(51.8)	313(48.2)	649(100)
2013년	328(51.6)	308(48.4)	636(100)
2014년	332(52.2)	304(47.8)	636(100)
2015년	302(50.1)	301(49.9)	603(100)
2016년	450(64.8)	244(35.2)	694(1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2017년에 미국산 쇠고기 구입을 늘릴 경우, 어떤 육류의 소비량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의 32.0%는 한우고기, 36.9%는 호주산 쇠고기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돼지고기 5.5%, 닭고기 3.9%, 줄일 생각 없음이 21.7%로 나타났다. 호주산 쇠고기를 줄이려는 응답자가 많아 수입육 간 대체뿐만 아니라 한우고기를 줄이겠다는 응답도 많아져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8. 미국산 쇠고기 구매시 타육류 소비 감소 의향 변화

단위: 명(%)

구분	한우고기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줄일 생각 없음	총계
2013년	84(29.9)	113(40.2)	17(6.0)	2(0.7)	65(23.1)	281(100)
2014년	58(26.5)	97(44.3)	25(11.4)	4(1.8)	35(16.0)	219(100)
2015년	61(23.0)	105(39.6)	27(10.2)	6(2.3)	66(24.9)	265(100)
2016년	102(26.4)	151(39.0)	30(7.8)	3(0.8)	101(26.1)	387(100)
2017년	158(32.0)	182(36.9)	27(5.5)	19(3.9)	107(21.7)	493(1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등심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WTP)을 조사한 결과, 100g당 구매의향 금액은 한우 1등급 등심(냉장) 4,161원, 미국산 등심(냉동)은 1,491원, 호주산 등심(냉동)은 1,526원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 지불의향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는 수입육 대비 한우고기 등심 지불의향이 2016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과 호주산의 지불의향이 좁혀지면서 소비자의 호주산 선호도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3-9. 한우 및 수입 등심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 추이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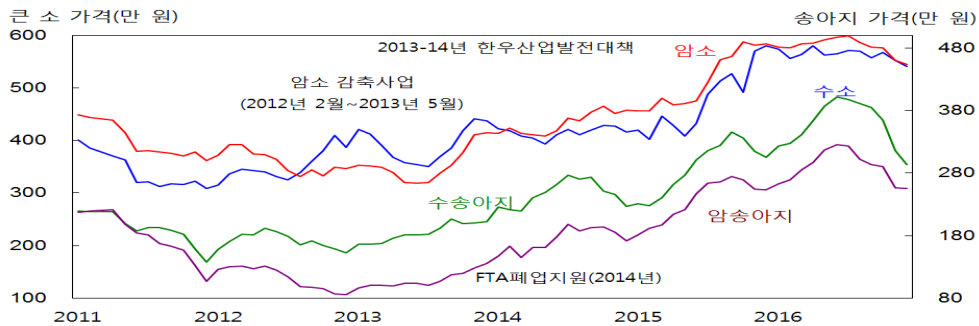
구분	등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우/미국산	2.86	2.82	2.73	2.79
한우/호주산	2.53	2.35	2.33	2.73
호주/미국산	1.13	1.20	1.17	1.02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1.1.3. 가격 동향

- 송아지 가격은 지난 2012년 1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1~9월 평균 수송아지 가격(6~7개월령)은 2015년 동기간보다 31.4% 상승한 369만 원이었으며, 암송아지 가격은 2015년보다 30.1% 상승한 297만 원이었다.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2016년 1~9월 우시장 평균 암소가격(600kg)은 2015년(492만 원)보다 19.0% 상승한 586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10월 이후 송아지 가격은 약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암소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림 23-6. 한우 산지가격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정보」

- 한우고기 공급 과잉으로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약세를 보이던 도매가격은 8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한우고기 생산 감소로 2016년 1~9월까지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 동기간보다 18.2% 상승한 1만 8,839원/지육kg으로 나타났다. 2~3등급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2015년보다 13~18% 상승한 1만 3,800원~1만 6,300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10~12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015년보다 7.4% 하락한 1만 6,781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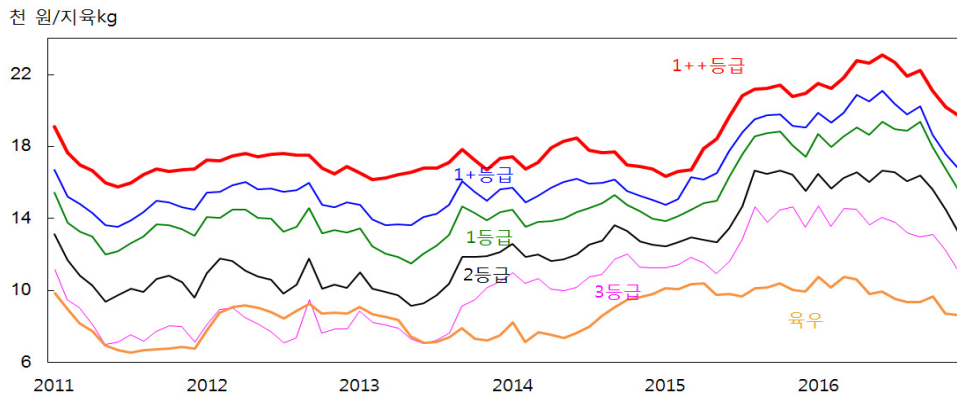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¹⁾ 시행 이후 다양한 부문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외식과 화훼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우의 경우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0~12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고려하면, 한우 가격 약세의 원인은 공급 감소폭보다 수요 감소폭이 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 23-10. 청탁금지법 전후 쇠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구 분	1~9월			10~12월		
	2015년	2016년	증감률 (%)	2015년	2016년	증감률 (%)
한우 도축 마릿수(마리)	692,554	554,357	-20.0	191,176	183,119	-4.2
한우 1등급 도매가격(원/kg)	15,944	18,839	18.2	18,116	16,781	-7.4
쇠고기 수입량(톤)	219,898	259,541	18.0	77,512	102,599	32.4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23-7. 등급별 한우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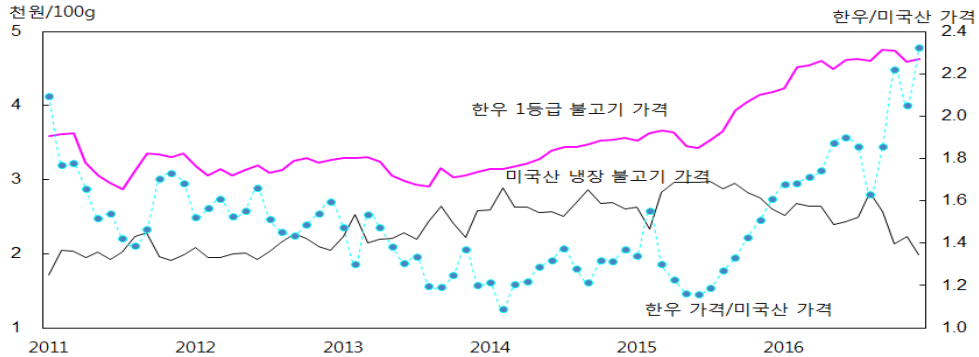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도매가격 상승으로 2016년 한우 1등급 불고기 소비자 가격은 4,578원/100g으로 2015년보다 22.5% 상승하였다. 수입 단가 하락으로 미국산 냉장 불고기 가격은 2,464원으로 2015년보다 12.2% 하락하였다. 국산 가격 상승 폭이 커 한우고기와 미국산(냉장) 쇠고기 평균 가격비는 2015년 1.33배에서 2016년 1.86배로 확대되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음. 특별히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허용 상한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임.

그림 23-8. 한우고기와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



주 한우 1등급 불고기와 미국산 냉장 불고기의 소비자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2. 쇠고기 교역 전망

- 2016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0.8% 증가한 6,049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7년에는 미국과 브라질, 중국과 인도의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6년보다 1.4% 증가한 6,132만 톤으로 전망된다.
-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6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5년보다 8.9% 증가한 112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7년에도 소 사육 마릿수 증가로 쇠고기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2017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6년보다 6.5% 증가한 119만 톤으로 전망된다.
- 소 사육 마릿수 감소와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6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5년보다 25.3% 감소한 139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7년에도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6년보다 4.3% 감소한 133만 톤으로 예상된다.
-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2016년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24.4% 증가한 82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7년에도 수입량이 늘어 95만 톤으로 예상되며, 홍콩 수입량(38만 톤)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의 수출량(119만 톤)을 넘어선다(USDA).

표 23-11. 미국, 호주, 중국의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미국			호주			중국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공급	생산	10,817	11,389	11,808	2,547	2,075	2,015	6,700	6,900	6,950
	수입	1,529	1,370	1,216	-	-	-	663	825	950
	소계	12,346	12,759	13,024	2,547	2,075	2,015	7,363	7,725	7,900
수요	소비	11,276	11,664	11,845	693	690	690	7,339	7,673	7,890
	수출	1,028	1,120	1,193	1,854	1,385	1,325	24	52	10
	소계	12,304	12,784	13,038	2,547	2,075	2,015	7,363	7,725	7,900

자료: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로 2017년 미국산 쇠고기의 kg당 국내 도매원가는 2016년보다 1.3% 하락한 9,670원으로 추정된다.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도매원가 또한 관세인하로 2016년보다 1.2% 하락한 8,903원으로 전망된다.
-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어 관세율이 1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되며, 2017년은 이행 4차 년도에 해당된다. 2017년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발동수준은 164,046톤²⁾이며, 초과 수입량에 대한 관세율은 40%로 규정되어 있다.
-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에는 호주산 쇠고기에 ASG가 발동되어 초과 수입량에 대해 40% 관세가 부과되었다. 관세의 단계적 인하에도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한·호주 FTA 협정문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참조.

이행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6차년도 (2019년)	7차년도 (2020년)
쇠고기 발동수준(톤)	154,584	157,676	160,829	164,046	167,327	170,673	174,08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0%	40%	40%	40%	40%	30%	30%

표 23-12. 수입 쇠고기 가격 전망

구분		2016	전망		
			2017	2021	2026
환율(원/US\$)		1,159	1,161	1,167	1,174
관세율 (%)	미국	26.7	24.0	13.3	0.0
	호주	32.0	29.3	18.7	5.3
수입단가 (\$/kg)	미국	6.19	6.21	6.90	7.72
	호주	5.48	5.50	6.11	6.84
도매원가 (원/kg)	미국	9,795	9,670	9,926	9,971
	호주	9,012	8,903	9,169	9,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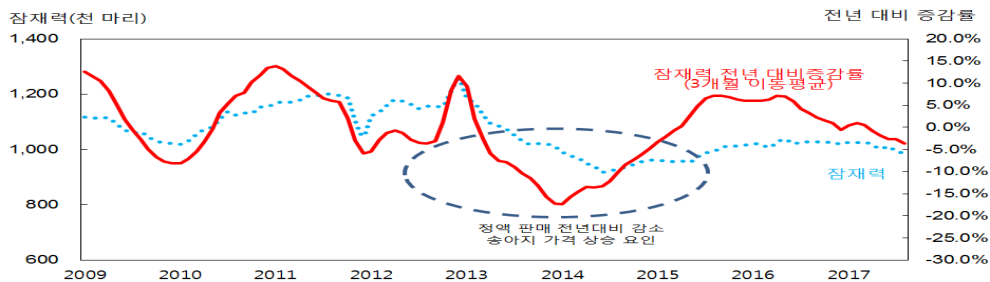
- ☞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16년 수입 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2016년 이후 수입 단가는 USDA 농업전망2015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3) 2014년 말 한·호주 FTA가 발효되어 쇠고기 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함. 호주의 경우 2014년 12월 12일자로 1차 관세인하가 되었으며, 2016년은 3년차에 접어들.
 4)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1.3.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1.3.1. 번식의향

- 송아지 가격이 예년 수준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번식 전문농가의 구조조정과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2016년 한우 정액 판매량은 183만 5천 스트로로 2015년보다 4.8%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7년 송아지 생산 마릿수는 201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9. 2017년 송아지 생산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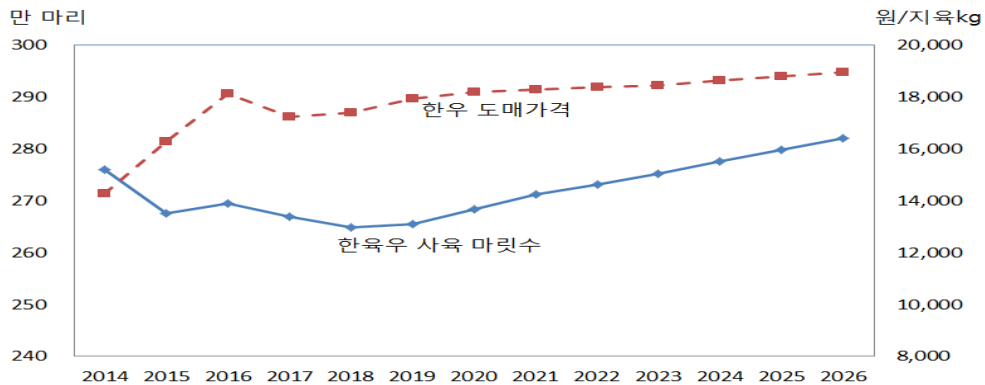
- ☞ 10개월(임신기간) 전 12개월 누계 정액판매를 이용하여 해당 월의 1세 미만 송아지 생산 잠재력을 추정함.
 자료: 농협중앙회

1.3.2. 쇠고기 수급 전망

가.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도매시장 가격 전망

-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고 거세우 출하대기 물량이 늘어 2017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6년의 269만 마리보다 0.9% 감소한 267만 마리로 예상된다. 사육 마릿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265만 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생산 증가로 2017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6년 1만 8,141원(650만 원/600kg 환산)보다 5.0% 하락한 1만 7,230원(617만 원)으로 전망된다. 이후 2018년에는 1만 7,405원(623만 원), 2021년 1만 8,276원(655만 원), 2026년 1만 8,957원(679만 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23-10.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도매가격 전망



사육 마릿수 전망치는 각 년도 12월 1일자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나. 쇠고기 수급 전망

-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17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6년보다 3.5% 증가한 22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8년 사육 마릿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9년 (22만 1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6년에는 25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 한·미, 한·호주 FTA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쇠고기 수입량 증가폭이 커 2017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6년보다 1.3% 증가한 11.6kg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2021년에는 12.2kg, 2026년 13.2kg으로 전망된다.

- 수입 개방이 확대되어 쇠고기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날 경우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지속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2017년 이후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36~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13.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정육 기준)

구분	2016 (추정치)	전망			
		2017	2018	2021	2026
생산	219	227	224	229	253
수입	362	364	372	397	435
1인당 소비량(kg)	11.5	11.6	11.7	12.2	13.2
자급율(%)	37.7	38.4	37.6	36.6	36.7
한우 도매가격(원/kg)	18,141	17,230	17,405	18,276	18,95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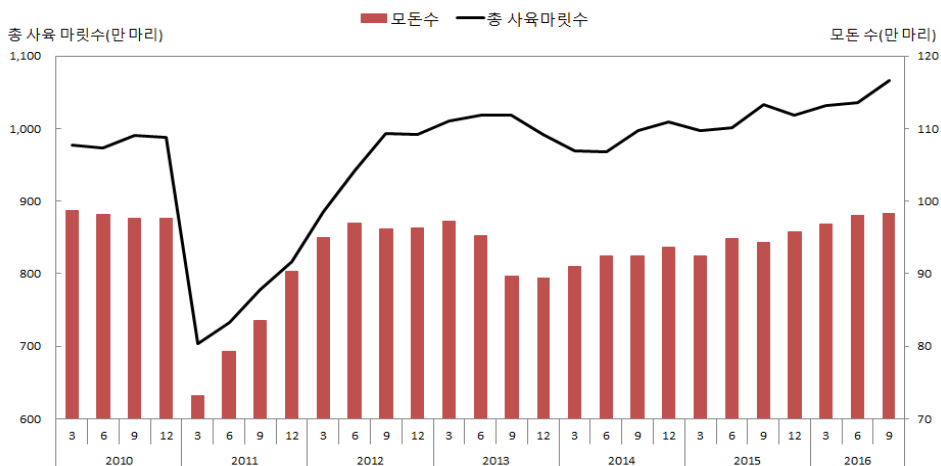
02 돼지

2.1.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동향

2.1.1. 사육 동향

- 2013년 9월 1,019만 마리에 달하던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돈 감축과 2014년 상반기 발생하였던 PED(Porcine Epidemic Diarrhea, 돼지유행성설사병)에 의해 2014년 6월 968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모돈 입식이 증가하여 2014년 12월 사육 마릿수는 1,009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FMD(Foot-and-mouth disease, 구제역)가 발생해 약 17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되어 2015년 3월 사육 마릿수는 997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질병 피해에서 회복되면서 9월 사육 마릿수는 1,033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12월 사육 마릿수는 2014년보다 1.0% 증가한 1,019만 마리였다.
- 2016년 1~3월 FMD가 발생하였고 6월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나, 살처분이 약 4만 마리에 그쳐 사육 마릿수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2016년 3월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동월보다 3.4% 증가한 1,032만 마리였다. 모돈 입식 증가로 9월 사육 마릿수는 1,067만 마리로 2015년 대비 3.3%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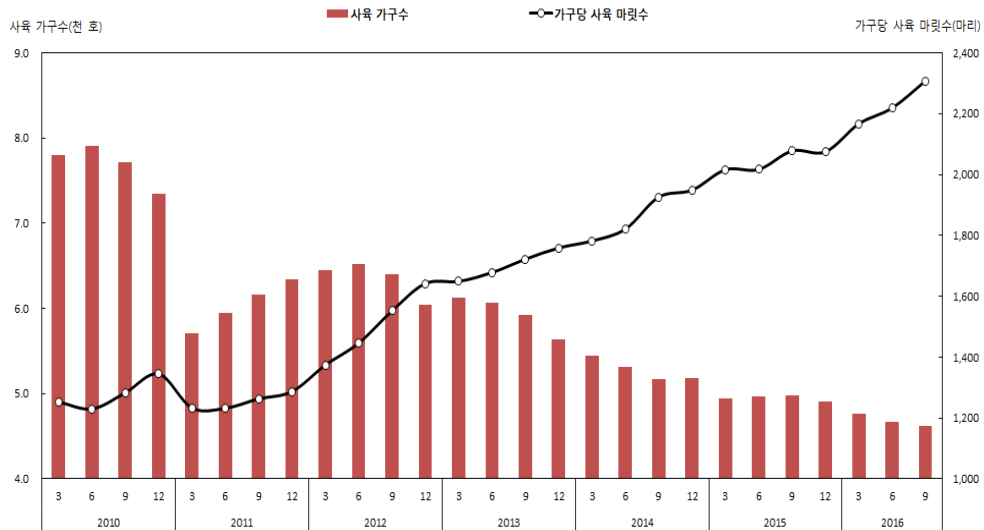
그림 23-11. 돼지 사육 마릿수와 모돈 수 추이



자료: 통계청

- 2016년 9월 기준 1,0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86만 4천 마리로 2015년 12월보다 5.6% 감소하였다. 1,000~5,0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556만 마리로 2015년 12월보다 2.7% 증가하였다. 5천 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421만 마리로 2015년 12월보다 10.0% 증가하였다.
- 2016년 9월 기준 1,000마리 미만 사육 가구수는 1,708가구로 2015년 12월 대비 16.8% 감소하였다. 1,000~5,000마리 미만 사육 가구수는 2,490호로 2015년 12월 대비 1.0% 증가하였다. 5,000마리 이상 사육 가구수는 424호로 2015년 12월보다 9.0% 증가하였다.
- 5천 마리 미만 사육하는 양돈농가 폐업이 증가하여 2016년 돼지 사육 가구수가 감소하였다. 2016년 9월 돼지 사육 가구수는 4,622호로 2015년 12월(4,909호)보다 5.8% 감소하였다.
- 사육 가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규모화와 전업화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9월 가구당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5년 12월 2,075마리보다 11.2% 증가한 2,308마리였다.

그림 23-12. 돼지 사육 가구수와 가구당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2.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 2016년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모든 수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2015년보다 4.0% 증가한 1,652만 마리였다.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하여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5년 84만 9천 톤보다 증가한 88만 2천 톤이었다.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라 돼지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5만 8천 톤보다 11.0% 감소한 31만 9천 톤이었다.
-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6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3.3kg으로 2015년 22.8kg 보다 2.2% 증가하였다.

표 23-14.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p)
공급	전년이월	47.5	55.2	120.0	107.7	91.2	129.1
	생산	575.6	749.7	853.8	830.2	848.6	882.0
	수입	370.4	275.2	185.0	273.9	357.9	318.5
	소계	993.5	1,080.0	1,158.8	1,211.8	1,297.7	1,329.6
수요	소비	937.8	958.8	1,049.3	1,118.9	1,166.4	1,219.0
	수출	0.5	1.3	1.8	1.8	2.2	0.6
	차년이월	55.2	120.0	107.7	91.2	129.1	110.0
	소계	993.5	1,080.1	1,158.8	1,211.8	1,297.7	1,329.6
1인당 소비량(kg)		19.0	19.2	20.9	22.2	22.8	23.3

주) 2016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6년 냉동 돼지고기 수입량은 26만 5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3.5%를 차지하였다. 냉동 삼겹살은 삼겹살 전체 수입량의 90.9%, 냉동 앞다리는 99.9%, 냉동 목심은 79.3%를 차지하였다.
- 앞다리 수입량이 2015년 14만 6천 톤에서 2016년 12만 2천 톤으로 16.4% 감소하였고, 삼겹살은 전년 수준인 14만 9천 톤이 수입되었다.
 - 삼겹살 수입 비중은 2015년 41.5%에서 2016년 46.7%로 증가하였고, 앞다리 수입 비중은 40.9%에서 38.4%로 감소하였다. 이는 무한리필 식당 유행으로 인한 삼겹살 수입량 증가와 국내 돼지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가공원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비중은 미국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18.6%, 스페인 13.1%, 칠레 7.0%, 네덜란드 4.5% 순이다. 냉동 앞다리는 수입량의 70.5%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냉동 삼겹살은 수입량의 40.4%가 독일에서 수입되었다. 권역별 수입 비중은 독일, 스페인 등 EU가 52.5%, 미국, 캐나다 등 북미가 37.4%를 점유하고 있다.

표 23-15. 우리나라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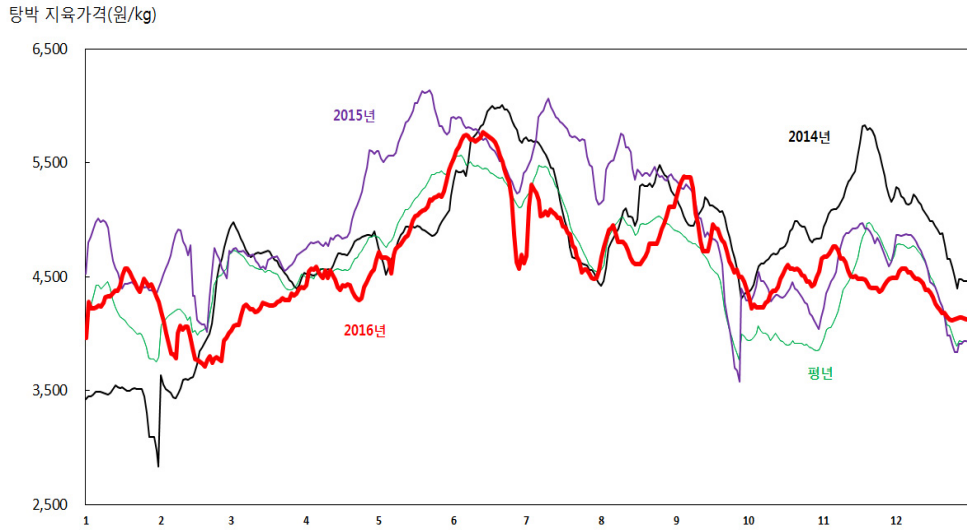
구분	미국	독일	칠레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총수입량
2011	143,047	27,153	24,991	47,567	18,893	17,934	16,465	370,382
2012	111,680	33,112	27,541	23,012	14,012	12,012	11,359	275,165
2013	75,720	24,572	19,470	10,430	8,627	8,429	6,403	184,966
2014	93,402	50,837	18,141	11,601	9,330	14,607	10,344	271,733
2015	129,363	58,486	26,562	16,695	15,267	15,492	8,723	357,923
2016	106,089	59,352	22,179	13,093	14,409	13,365	7,122	318,49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1.3. 돼지고기 가격 동향

- 2016년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5년보다 돼지 도매가격이 하락한 해였다. 8월까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1,066만 마리로 2015년 동기간 1,019만 마리보다 4.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돼지 도매가격은 탕박 기준 kg 당 4,616원으로 2015년 동기간 5,169원 대비 10.7% 하락하였다.
- 9월 들어 돼지 지육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하였으나,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2015년 대비 상승하였다. 이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TV 프로그램 방영 후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 것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우고기 대체 수요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 것이 돼지 도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 9월 등급판정 마릿수는 131만 마리로 2015년 동월 128만 마리보다 2.6% 증가하였으나, 돼지 도매가격은 4,970원으로 2015년 동월 4,840원보다 2.7% 상승하였다.
- 10월 도매가격은 7~8월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등급판정 마릿수가 감소하여 2015년 동월보다 2.4% 상승한 4,415원이었고, 11월과 12월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2015년 동월 대비 하락한 4,540원, 4,350원이었다.
- 따라서 2016년 돼지 도매가격은 2015년 4,939원보다 6.9% 하락한 탕박 kg 당 4,600원이었다.

그림 23-13. 돼지 지육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6년 9월 돼지 평균 지육가격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공급 부문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수요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여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16. 2016년 9월 요인별 돼지 지육가격 등락 기여도 추정

구분	공급		수요	돼지 도매가격
	국내 생산량	수입량		
2016년/15년	2.6% 증가	12.1% 증가	5.5% 증가	2.6% 상승
요인별 가격 등락 기여도	6.1% 하락	0.5% 하락	9.2% 상승	

☞ 국내 생산량(도축두수)에 대한 가격 신축성 계수는 -2.33, 수입은 -0.04, 수요는 1.67 적용.

2.1.4. 돼지고기 소비 패턴

- 2017년 1월 2~4일 3일간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7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한우고기 및 수입 쇠고기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17.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육류 소비 변화

한우 고기	수입쇠고기	국산 돼지고기	수입 돼지고기
95.5	97.2	100.2	95.9

☞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소비량을 100으로 가정할 때의 소비량 변화를 지수화 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응답자의 14.1%(2016년 설 대비)가 2016년 추석 소비용으로 한우 고기 및 한우고기 선물세트 구매량을 감소하였으며, 이들은 2016년 설 대비 한우고기 구매량의 14.6%, 한우고기 선물세트 구매량의 25.5%를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 추석 소비용으로 한우고기 및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대체하는 다른 육류의 구매량 변화를 살펴보면, 육가공품 선물세트가 11.5%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산 돼지고기 4.4%, 수입 쇠고기 2.1% 순으로 구매량이 증가하였다.

표 23-18. 한우고기 대체육류의 추석용 소비 동향

국산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육가공품 선물세트	수산물
104.4	102.1	94.7	111.5	101.2

☞ 2016년 설 소비량을 100으로 가정할 때의 소비량 변화를 지수화 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2016년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을 전년보다 증가시켰다는 응답이 감소시켰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나, 수입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감소시켰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국산 돼지고기를 더 많이 소비한 주요 요인은 맛이 좋아서이며, 수입 돼지고기 소비량을 감소시킨 주요 요인은 안전성이 의심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10월 WHO의 발암물질 보도 여파로 햄과 소시지 등 육가공품 소비량은 국산과 수입육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표 23-19. 소비자의 국산 및 수입 돼지고기 소비 변화(2016년)

단위: 명, %

	국산		수입	
	돼지고기	육가공품	돼지고기	육가공품
전년 대비 증가	229(32.9)	125(17.8)	46(7.9)	35(5.6)
변동 없음	387(55.7)	377(53.7)	371(64.1)	395(64.8)
전년 대비 감소	79(11.4)	200(28.5)	162(28.0)	198(31.5)
전년 대비 비중	104.7	96.4	90.7	88.6

☞ 전년 대비 비중은 2015년 소비량을 100으로 가정할 때의 소비량 변화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제조한 수제 햄, 소시지 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3.1%에 불과하였다. 구매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건강상의 이유와 비싼 가격을 지적하였다. 다만 향후 식육판매업소에서 제조한 수제 햄 등에 대해 구매의향이 있다는 소비자는 33.4%로 나타나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2017년 국산 돼지고기 소비의향은 전년보다 2.2~3.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 돼지고기 소비의향은 전년보다 7.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입 돼지고기의 가정내 소비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20. 2017년 돼지고기 소비 전망

단위: 명, %

구분	국산		수입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년 대비 증가	177(25.2)	186(26.8)	30(5.0)	31(5.3)
변동 없음	455(64.8)	433(62.4)	418(70.3)	410(69.5)
전년 대비 감소	70(10.0)	75(10.8)	147(24.7)	149(25.3)
전년 대비 비중	103.2	102.2	92.8	92.9

주 전년 대비 비중은 2016년 소비량을 100으로 가정할 때의 소비량 변화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2.2. 돼지고기 교역 전망

- 2016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5년보다 5.5% 감소한 5,185만 톤으로 추정된다. 사료 가격 하락과 중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돼지 사육 마릿수가 증가해 201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6년 대비 3.7% 증가한 5,375만 톤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7년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6년보다 10만 톤 감소한 230만 톤으로 전망된다.
- EU의 201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6년 수준인 2,335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2016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5년보다 증가한 330만 톤이었으나, 중국의 수입 감소로 2017년은 2016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육 마릿수 증가로 미국의 2016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1,131만 톤으로 추정되며, 2017년은 1,174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해외 시장 수요 증가로 2017년 돼지고기 수출은 245만 톤으로 전망된다(USDA).

표 23-21.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중국			EU			미국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공급	생산	54,870	51,850	53,750	23,290	23,350	23,350	11,121	11,307	11,739
	수입	1,029	2,400	2,300	-	-	-	506	517	526
	소계	55,899	54,250	56,050	23,290	23,350	23,350	11,627	11,824	12,265
수요	소비	55,668	54,070	55,870	20,913	20,062	20,062	9,341	9,452	9,811
	수출	231	180	180	2,389	3,300	3,300	2,272	2,356	2,449
	소계	55,899	54,250	56,050	23,302	23,362	23,362	11,613	11,808	12,260

자료: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 한·미, 한·EU FTA 체결 및 환율 전망치와 수입단가 등을 이용하여 2026년까지 도매원가를 추정한 결과, 2017년 미국 돼지고기(냉동)의 경우 관세는 폐지되나, 수입단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내 도매원가는 2016년보다 상승한 3,893원/kg으로 전망된다. EU산 돼지고기(냉동)의 국내 도매원가는 환율 상승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2016년보다 상승한 4,229원으로 전망된다.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가 철폐되나, 환율과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국내 도매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산 돼지고기 관세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나, 환율 상승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국내 도매원가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22. 수입 돼지고기 가격 동향과 전망

구분		2016	전망		
			2017	2021	2026
환율(원/US\$)		1,159	1,161	1,167	1,174
관세율(%)	미국	0.0	0.0	0.0	0.0
	EU	11.0	9.0	0.0	0.0
	기타	17.3	13.3	4.9	4.9
수입단가(\$/kg)	미국	2.61	2.90	3.31	3.82
	EU	2.31	2.90	3.31	3.82
	기타	2.47	2.72	3.06	3.53
도매원가(원/kg)	미국	3,493	3,893	4,459	5,179
	EU	3,870	4,229	4,458	5,178
	기타	3,850	4,118	4,315	5,012

☞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16년 이후 수입 단가는 미국 농무부 농업전망 2016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3)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2.3.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2.3.1. 중기 선행관측

- 2016년 11월까지 모돈용 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1% 증가한 96만 2천 톤이었다. 또한 2016년(11월까지) 후보돈 판매는 2015년 동기간 대비 11% 증가하였다. 후보돈 입식 증가로 2017년 3월 모돈 수는 2016년 3월보다 증가한 98~100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6년 7~8월 폭염에 따른 모돈 생산성 피해 정도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사육 마릿수는 전망치보다 감소할 수 있다.
- 표본농가의 2017년 3월과 6월 돼지 사육 의향이 전년보다 2.0% 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축산관측 돼지 2017년 1월호). 모돈 수 증가로 2017년 3월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2016년 3월보다 1.7~3.7% 증가한 1,050~1,070만 마리로 전망되며, 6월 사육 마릿수는 2016년 6월보다 1.4~3.3% 증가한 1,050~1,07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1~4월 등급판정 마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2016년 9~11월 생산된 자돈용 사료는 전년 동기간보다 4.5% 증가한 126만 톤이 생산되었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1~6월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2016년 동기간보다 1% 내외 증가한 823만 마리로 전망된다.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은 1% 내외 증가한 43만 7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2016년보다 3.6% 감소한 16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7년 1월 지육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하나,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2016년 1월 수준인 당박 kg 당 4,200~4,500원으로 전망된다. 2월은 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학교 급식 재개와 나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3월과 4월은 1, 2월보다 상승한 4,300~4,600원으로 전망된다. 5월과 6월은 3, 4월보다 상승한 평균 5,000원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23. 월별 돼지고기 생산량 전망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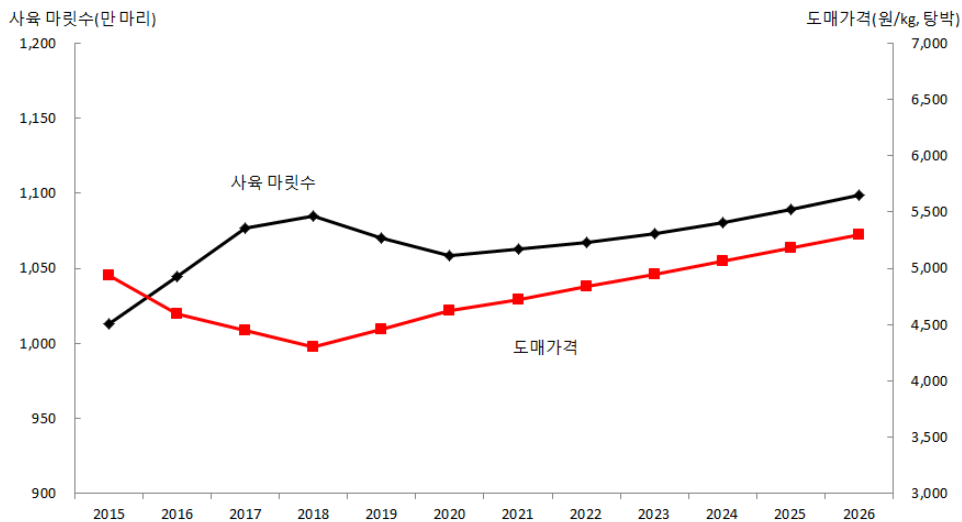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2017년(A)	75.7	74.8	75.3	73.4	71.2	66.2	436.6
2016년(B)	74.9	69.1	79.6	71.8	71.8	65.7	432.9
평년(C)	66.0	62.6	68.4	67.1	63.7	58.6	386.4
(A)/(B)증감률	1.1	8.3	-5.4	2.3	-0.7	0.7	0.9
(A)/(C)증감률	14.6	19.4	10.1	9.5	11.8	13.0	13.0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2.3.2. 장기 수급 전망

- 2016년 모든 입식 증가로 2017년 연평균 모든 수는 2016년보다 증가한 100만 마리 이상으로 전망된다. 생산성 향상으로 모든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95만 마리, 2026년은 94만 마리로 전망된다.
- 모든 수 증가로 2017년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6년보다 증가한 1,080만 마리 내외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세는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8년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2020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1,100만 마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모든 및 전체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7년 돼지 도축 마릿수는 2016년보다 증가한 1,688만 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89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돼지 도축 및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19~20년 사육 마릿수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6년에는 92만 9천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지육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7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6년보다 감소한 28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후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와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2026년 수입량은 34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2017년 돼지 연평균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kg당 4,450원, 2018년은 4,22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도축 마릿수 감소로 지육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소득 증가와 육류 소비 증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2021년 4,746원, 2026년 5,454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23-14. 돼지 사육 마릿수와 도매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표 23-24.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2016	전망		
			2017	2021	2026
공급	전년 이월	129.1	110.0	108.8	109.9
	생산	882.0	895.3	896.4	929.0
	수입	318.5	288.3	319.0	343.5
	소계	1,329.6	1,293.6	1,324.2	1,382.4
소비	소비	1,219.0	1,182.6	1,213.1	1,270.1
	수출	0.6	2.2	2.2	2.1
	차년 이월	110.0	108.8	108.9	110.2
	소계	1,329.6	1,293.6	1,324.2	1,382.4
1인당 소비량(kg)		23.3	22.6	22.9	23.7
지육가격(원/kg)		4,600	4,450	4,746	5,454

주 2016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